

2020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글서예, 논어, 한시, 한문서예
한국화, 민화, 수채화반

| 전시기간 | 2020.12.1(화) ~ 12.4(금)

| 전시장소 |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

| 후 원 | 양양군   양양군의회



2020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한글서예, 논어, 한시, 한문서예
한국화, 민화, 수채화반



■ 모시는 글 ■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전 세계가 사상초유에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 5월이 되어서야 문화학교 개강을 하였고 수강도중 몇 번의 휴강을 하면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2020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며 훌륭한 강사님들의 지도하에 열심히 배우신 작품들을 출품하여 문화학교 작품전시회를 갖게 된 것을 어느 해 보다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 활동과 생활문화 예술 활동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진하 양양군수님과 김의성 양양군의회회장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을 위해 애정으로 향토문화를 아껴 주시는 양양군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양 양 문 화 원 장
윤 여 준

이번 작품전시회는 짧은 시간동안 배운 수강생들의 작품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할 실력을 겸비한 작품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수강생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배운 작품들을 전시함으로써 혼신을 다한 작품들은 서로 간에 즐겁고 행복한 경쟁이 되는 공간을 갖게 되는 것이며, 모든 분들이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간직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끌어내어 함께 즐거운 작품 활동을 통해 행복함과 자부심을 느끼면서 즐거운 삶이 되는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바이러스 감염에 어려움을 이겨내며 열심히 수강생들을 지도해 주신 각 교실 강사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0년 쥐띠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1년 신축 년 소띠 해에는 회원님들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리며 함께하신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서에 교실



• 지도강사 : 김광희

• 수료자 : 김순자 김순희 김영순 노복현 로재창 박경숙 박상민 박상혁
심현순 양마루치 양영철 이규환 이정희 이주옥 장영랑 조덕희
조영순 홍의태



라일락



혜을 김 순 자

알신구득무생사마
 아주경이안불리하
 제시열무계열자반
 아대반소내불색야
 제명삼득지구불바
 바주세고무부이라
 라시제보의정공밀
 아무불리식부공다
 제상의살계중불심
 바주반타무불이경
 라시아의무감색
 승무바반명시색관
 아등라야역고족자
 제등밀바무공시재
 모주다라무중공보
 지능고밀명무공살
 사제득다진색족행
 바일아고내무시심
 하체족심지수색반
 고다무무상수야
 진라가노행상바
 실삼애사식행라
 불막무역무식밀
 허삼가무안역다
 고보애노이부시
 설리고사비여조
 반고무진설시견
 야지유무신사오
 바반공고의리온
 라야포집무자개
 밀바원열색시공
 다라리도성제도
 주밀전무항법일
 족다도지미공체
 설시몽역촉상고
 주대상무법불억

반야심경의 중장사상을 이변을 삼자로 함은 하
 불교경전이라 하야 바와 밀다 심경을 본다고도 감명운

반야심경

세상돌아가는것을어찌다말하랴인정이
 없을수는없어거나하면술손님을부르
 고우연히나뭇꽃피드씩하네지극한도는
 옛성인을사모하지만설없는이야기하며
 늙은선비가부끄러워라그대에게재택
 있음이부러우니

찬모통이를돌면서모통이를
 아네운곡시고요감명순

운곡선생시



고요 김 영 순

살피는 오지오 꽃밭은 찻지 오이 제부터
달행이 한마리가 꽃밭에 사는 오수 조를 기
를 타고 빛이 아 주 한히 기어다니기
가서 마침내 오를 수 있는 만큼을 라간 것
일까요 이 제 그만 하는 걸까요 그 끝에 알맞
게 되어진 것 아니냐 흐릿한 빛꽃들을
고요하 하루 중일 앓음 그 땅입니다

참 좋은 봄날

고요충신이 살아와 있는 빛이며 불진사 예수약한 불파중의
충신들을 다 나타낼 나그네 빛이다 티순부조사의 장문들이
여석이 되 말을 선행하시 고 통곡하시 이원슈 선호출품이
충양업스나 위로하시 여왕지 금빛이 급속고 신이 밝이 둔
병속음고 티즈의 존망을 모로와 드려와 씩터이 초신이 제
죄나와 근병을 거버려와 티즈을 모시 울터 손이 육체로
중속음소서 죽사하고 나온 이라이 날방요경의 제명성이
이 모든 충신들이 각기 채조르도라가 삼을 빛의 지 못을 다 향은 봄날

조웅전에서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살피는 오지오 꽃밭은 찻지 오이 제부터
달행이 한마리가 꽃밭에 사는 오수 조를 기
를 타고 빛이 아 주 한히 기어다니기
가서 마침내 오를 수 있는 만큼을 라간 것
일까요 이 제 그만 하는 걸까요 그 끝에 알맞
게 되어진 것 아니냐 흐릿한 빛꽃들을
고요하 하루 중일 앓음 그 땅입니다

고요할수록 밝아지는 것들



향운 노 복 현

가을빛

가을엔 바람도
하늘빛이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주요하는 말들로
기쁘게 말들로
모두 너무 투명해져
두려운 가을빛이다
죽어와와 역사들이
바람속에 그리움을
풀어헤친 언덕길에서
우리 모두 말을아끼며
걸어지고 있다

2020.12 이해인시 가을빛
단비 박경숙 스카

가을 빛

나팔꽃처럼

햇살에
느끼는 나팔꽃처럼
나의 생애는 당신을 향해
열린 마초입니다-
시련한뜨락에 피워올린
한줌이 소망꽃이 내안에서
증을치는 하얀큰이름은
언제나 당신입니다
순명보다 원망을 드려
부끄러운 세월앞에
해를알고 익은 사랑
때가되면 초여름 버리고
떨날 한줌이 나팔꽃입니다

2020.12
이해인시 나팔꽃처럼
단비 박경숙 씀

나팔꽃처럼



단비 박 경 숙

고상인의 정체를 아파마와 기년의 대역항평이 어역간
 신의마임임이 된영가수상우의 어역기려나답기
 도박기도남기 도박적갈임마음의영가것의
 아가문과다만일아름다아마임마일사랑한다
 편왜나의반지를보적이녀아나항대야이녀
 만복을어역당신의시구범범의새녀가녀기
 전가남아퍼범이어역 항역아기서 천영만수영

한용운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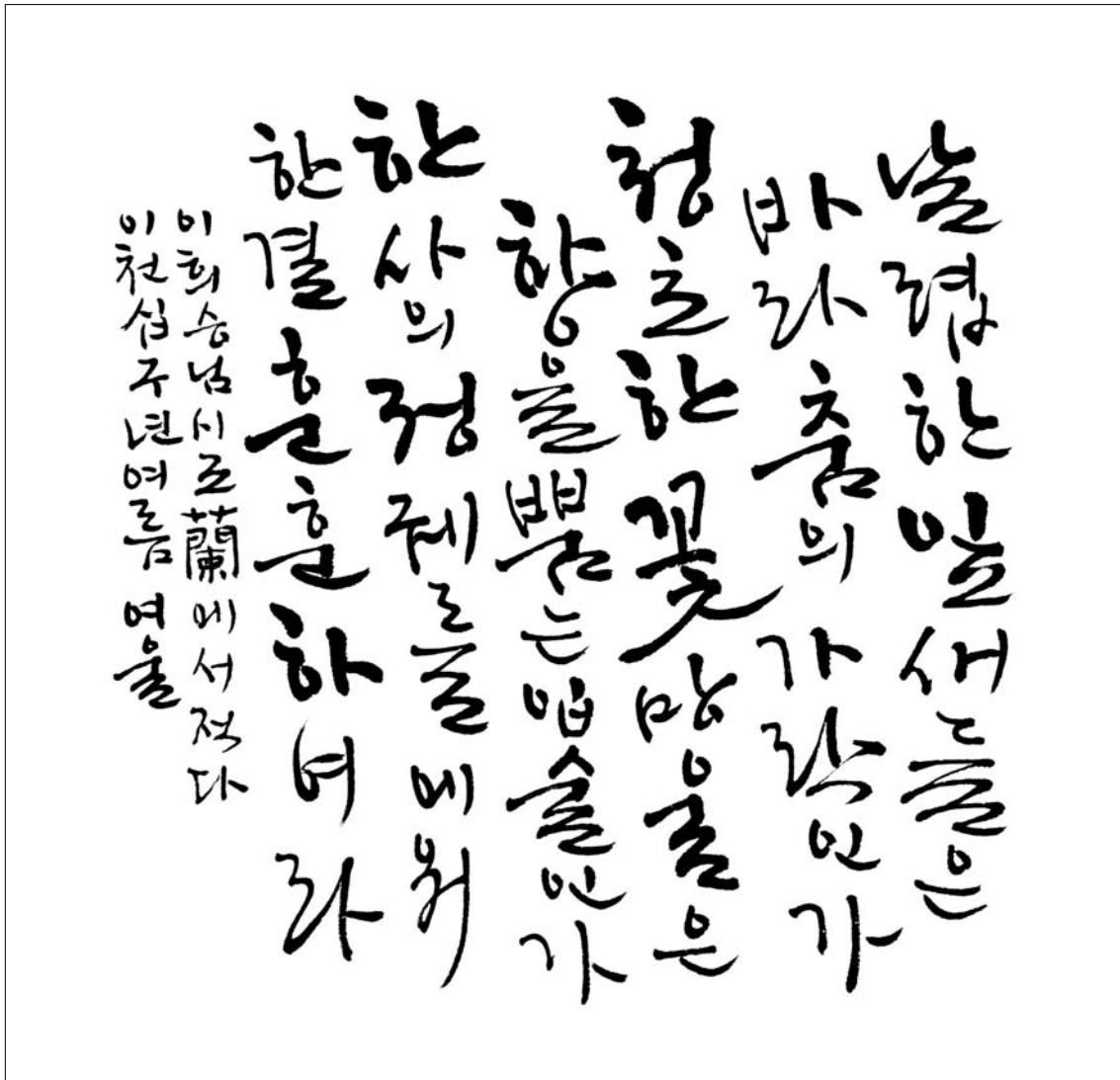
사람은복덕선남평의자꾸복덕의결생은면
 서사원이始作되네산들바람에버들개지흔
 날리근포슬비에연기말아나萬物을살피면
 며威風를느끼고마음은다잡아너(가)를
 을아나人主百事에다가變하느니(가)를
 만이안복하임이(가)를안고나네

은곡선생시에서
 청경 박상혁

은곡선생시



청경 박 상 혁



蘭



여을 심 현 순

초보

백이산은 일석 두운 두봉은 한 그 자운 밖 그 곳은 내운
 영암은 이운 그 이운은 구운 이운이 만의 만의 길과 나운이
 구운은 개구운은 구운이 영암로 대운이 만의 만의 길과 나운이
 微震도 가파운은 雨露 雲山이라 정자의 운은 나운이

난초

풍은 보리 배설이 그 하층을 흐르는 그 고지리가
 빛겨른 아작드날아 흐르는 남이 라고 생강
 하라 나의 무덤 앞에는 그 차가은 돌을 세우지 마라
 이 화이십년 겨울에 함형주의 碑名에 서 명현 양마루치

함형주시 碑名



덕현 양마루치

하늘이 푸르랴고 땅이 개국한 곳에 이르러 봄이 왔으니
 노닐며 이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이 땅은 푸르랴고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푸른 구역을 힘에 겨워 일케 하였으니 푸른 구역을

이런 이십년 초겨울 한응은 시골 푸른 산배를 쓰며 어이 양영철

슬픔의 삼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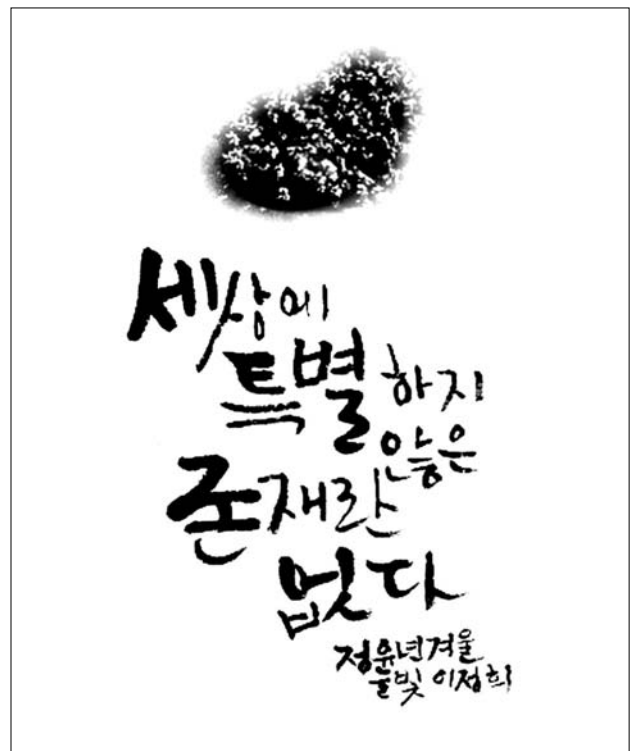
어이 양영철



장미꽃처럼



늘빛 이 정 희



존재

가을하늘은 푸르고 광한 전은 차가운 데 온 밤
 둥근 달은 어젯밤의 둥근 달은 하수는 운모의 병
 풍비쳐치고 금슬 절은 곧바로 달에서 쏟아지네
 달빛이 하룻밤 사이에 줄어들지는 알아보는 사
 람 정취가 만 리에 갈은 리라 흰빛이 차츰 울려지
 고 바람이 슬이 내리자 작은 트랙의 술 그림자가
 난간 외 일렁이네 가을밤의 달 참빛이 주옥

가을밤의 달



참빛 이 주 옥



그대는 꽃이다



봄들 장영랑



부활



솔내 조 덕 희

아침에 잠에서 깨어 날 수 있는 마음을 감사하라. 제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지 말 것이며 내일을 생각하며 영
혼을 살라. 무엇이냐 남과 비교하지 말며 내일은 학
만 치하고 만주함을 알라. 정신적이며 나쁜 질적인
로 빚지지 말라. 저년에 들어 그날 삶을 감사하라.

정몽주와 정몽주의 문예에 대한 이해를 위한 다 가목 홍의 태

오늘을 위한 기도

봄비가 가을에 흐르듯 없이 내리려니 내 땅을
자가 늘게 할 방을 지능으로 되리라. 내 땅을
나를 지키는 내 땅으로 되리라. 내 땅을 지키는
드름아 나 갱지. 정몽주의 봄비가 가을의 태

정몽주의 봄비



가목 홍의 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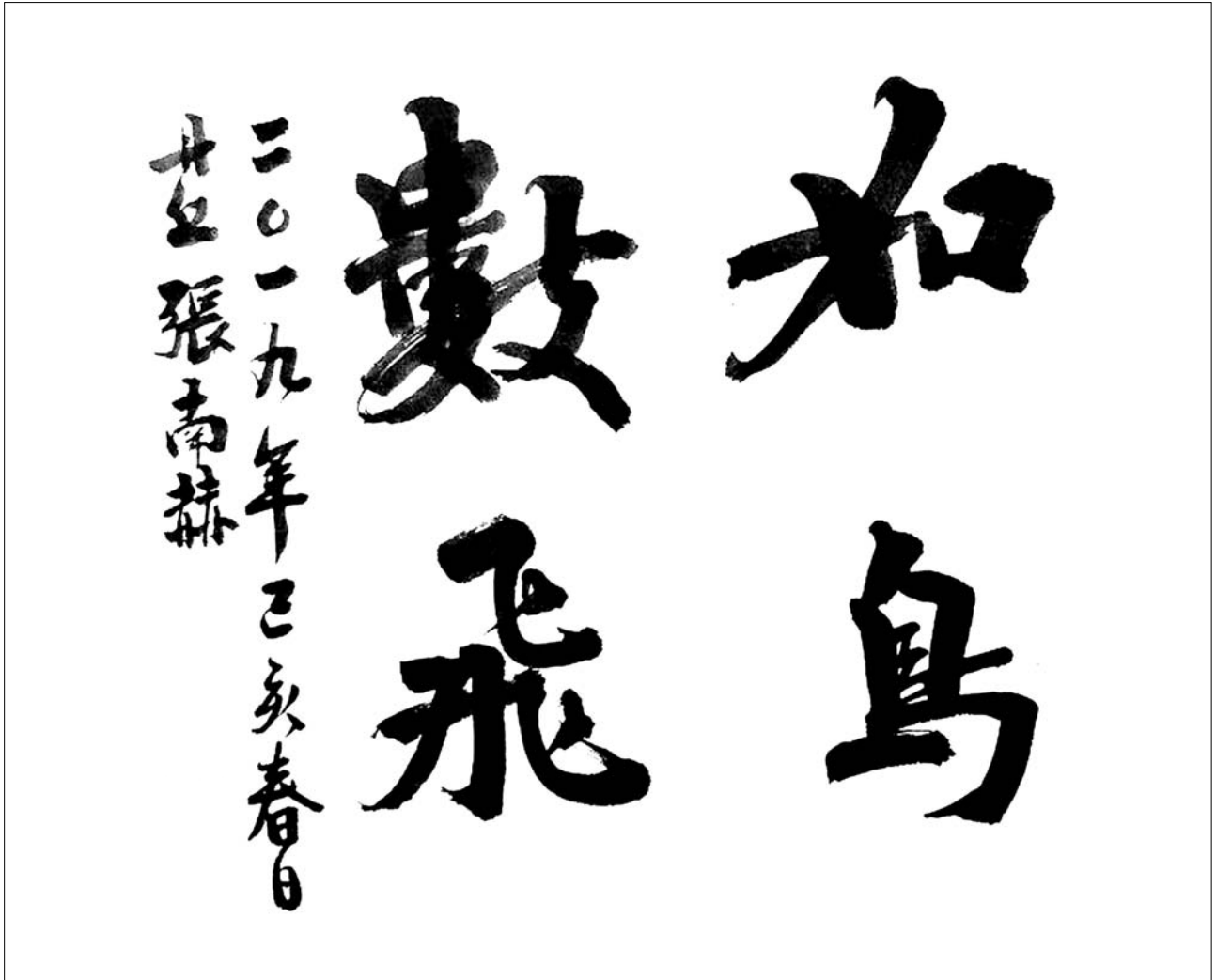
● ● ● 논어교실

“내 마음속의 논어”



• 지도강사 : 최 영 택

• 수 료 자 : 권영세 김구래 김나연 김연수 김윤래 김희석 노이준 박상형
양동창 윤여준 이건남 이상균 이흥수 최돈균 최종학 한상호
황광수 황재권



논어 학이편 주자주(朱子 註) - 여조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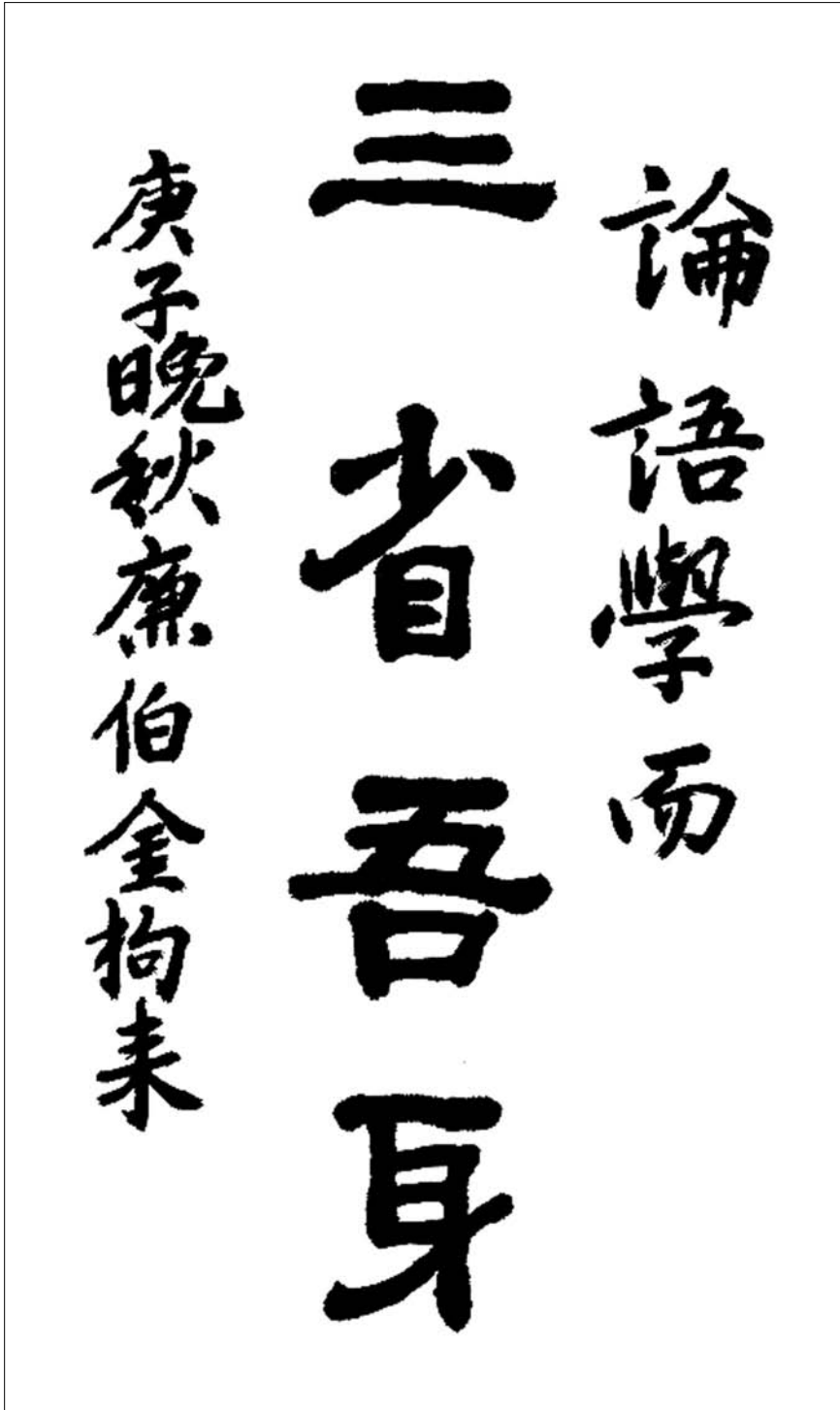
지도강사 최영택

論語學而
則以學文
庚子晚秋峴齊崔容一

논어 학이편 - 즉이학문



권 영 세



논어 학이편 - 삼성오신



염백 김 구 래

論語
 子
 復
 乎

庚子晚秋峴齊崔容一

논어 팔일편 - 예후호



김 연 수

忠恕而已矣
論語里仁

庚子晚秋峴齊崔容一

논어 이인편 - 충서이이의



김 나 연

論語學而

學而時習

庚子晚秋 蒼波 金允來

논어 학이편 - 학이시습



청파 김 윤 래

論語學而
學而時習

庚子晚秋金會奭

논어 학이편 - 학이시습



김 회 석

論語述而

歌而後和

庚子晚秋峴齊崔容一

논어 술이편 - 가이후화



노 이 준

論語述而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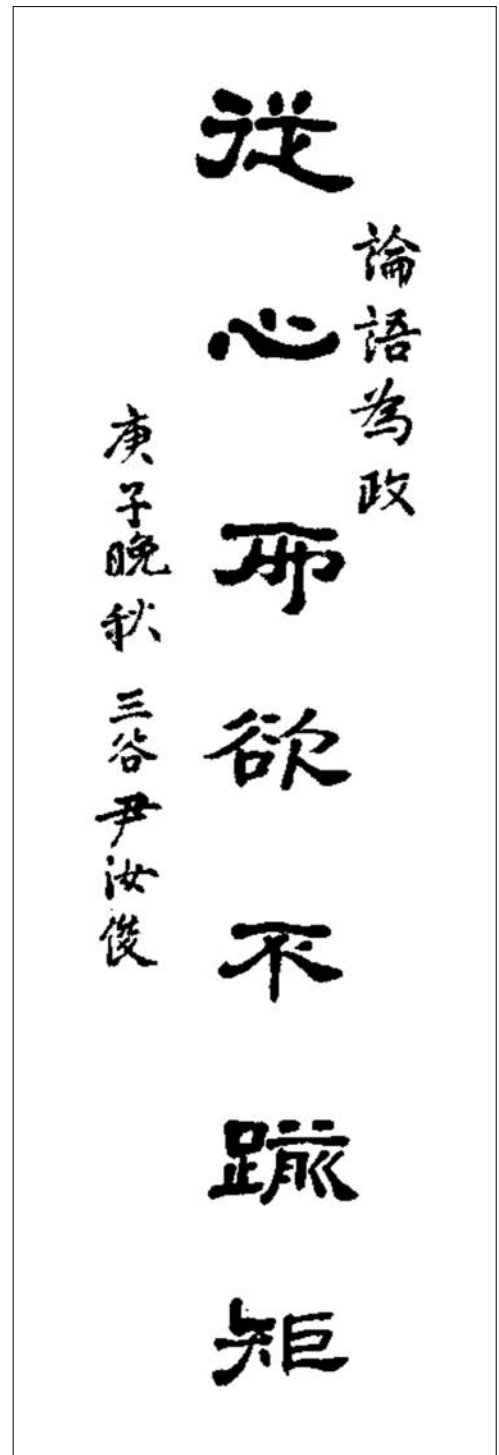
苟有過人必知

庚子晚秋 南岡梁東昌

논어 술이편 - 구유과인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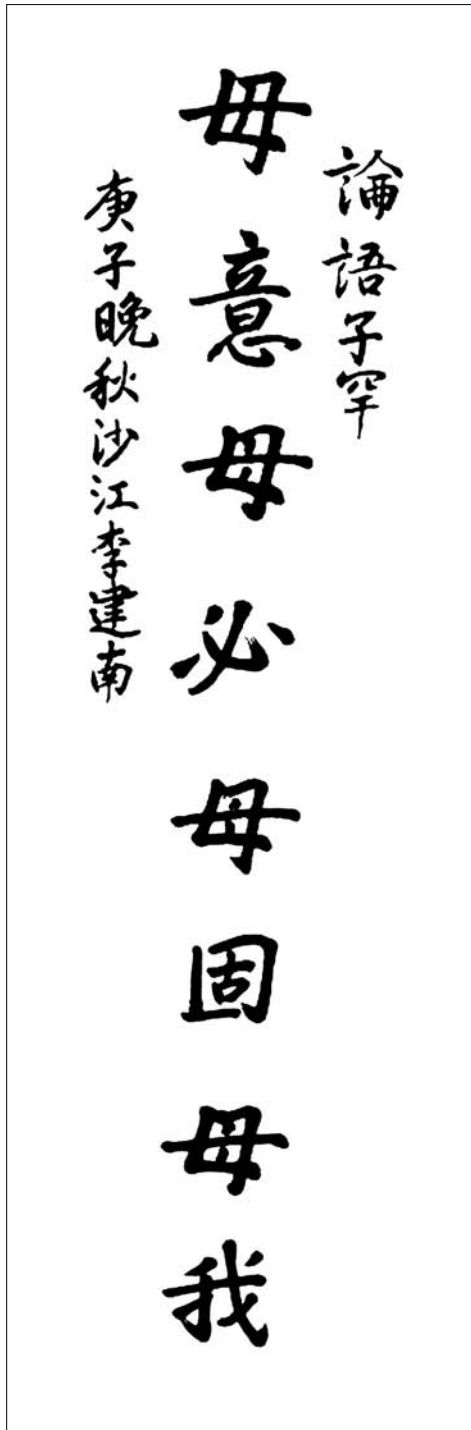
남강 양 동 창



논어 위정편 - 종심소욕불유구



삼곡 윤 여 준



논어 자한편 - 무의무필무의무아



사강 이 건 남

論語先進

過猶不及

庚子晚秋峴齊崔容一

논어 선진편 - 과유불급



이 상 군

論語學而

本立而道生

庚子晚秋峴齊崔容一

논어 학이편 - 본립이도생



이 흥 수

論語里仁

見賢思齊

庚子晚秋 崔燾均

논어 이인편 - 견현사제



최 돈 군

行不由徑

구부러진 길이
구부러진 길은
구부러진 길이
구부러진 길은
구부러진 길이
구부러진 길은
구부러진 길이
구부러진 길은

논어 용야편
술빛

논어 용야편 - 행불유경



청해헌 한 상 호

而學語倫
無友不如己者
過則勿憚改哉
庚子秋青山

논어 자한편 - 무우불여기자 과즉물탄개재



청산 황 광 수

溫故以知新可以為師矣

論語為政

庚子晚秋 石井黃在權

논어 위정편 - 온고이지신 가이위사의



석정 황재권

한시 교실



• 지도강사 : 이종우

• 수료자 : 김경일 김구래 김기송 김덕주 김무풍 김윤래 김준호 김형래
박문희 안병대 양동창 이상권 이성복 정남순 최종학 추종삼
황광수 황재권

願新種疫病終熄

種新疫病蔓延時	(종신역병만연시)	종이 새로운 역병이 만연하는 때에
各自防除履熟知	(각자방제리숙지)	각자가 방제수칙을 숙지하고 이행하자.
全國昏迷寒本土	(전국혼미한본토)	전국이 혼미해 본토가 싸늘하고
衆民苦楚瘦元基	(중민고초수원기)	백성의 고초에 터전은 파리하다.
打開困境名醫可	(타개곤경명의가)	곤경 타개에는 명의가 가세함이 가당하고
突破危機妙藥宜	(돌파위기묘약의)	위기 돌파에는 묘약을 처방함이 마땅하다.
官府方針遵徹底	(관부방침준철저)	정부의 방역 방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難關終熄必歡怡	(난관종식필환이)	난관이 종식되면 반드시 기쁨을 맞으리.



지도강사 又泉 李 鍾 富

願新種疫病終熄

新生疫病蔓延時	(신생역병만연시)	새로 생긴 역병이 만연하는 이때에
妙案諸邦講究知	(묘안제방강구지)	묘안을 여러 나라가 지혜롭게 강구해야 하네.
蟄伏家庭餘裕處	(칩복가정여유처)	칩거하고 있는 가정에서 여유롭게 쉬게하고
距離社會解消基	(거리사회해소기)	거리두기의 사회생활을 해소하도록 하세.
危機突破求醫有	(위기돌파구의유)	위기를 돌파하기 위하여 유능한 의사를 구하고
困境攻培得藥宜	(곤경공부득약의)	곤경속에서 병을 다스릴 마땅한 약을 얻어야 하지.
怪疾流行終熄快	(괴질유행종식쾌)	괴질의 유행을 명쾌하게 종식시키고
榮光我國達成怡	(영광아국달성이)	영광된 우리나라를 기쁨으로 달성하세.

(社)韓國漢詩協會襄陽支會長

南岡 梁 東 昌



願新種疫病終熄

肺炎疫病蔓延時	(페염역병만연시)	페렴 역병이 전국에 만연한 때인데
傳染防除對案知	(전염방제대안지)	전염을 방제하는 대안을 알아야 하네.
擴散疑心湔手廈	(확산의심전수하)	의심자가 확산하니 집에서 손을 씻고
增加確診蔽脣基	(증가확진폐순기)	확진자가 증가하니 입을 가리자 (마스크를 쓰자)
名醫妙策開成可	(명의묘책개성가)	명의묘책을 시행하여 성공함이 가하고
賢吏深謀樹立宜	(현리심모수립의)	현리의 심모를 수립함이 마땅하리.
政府方針隨準則	(정부방침수준칙)	정부의 방침과 준칙을 잘 따르고
危機終熄有榮怡	(위기종식유영이)	위기 종식되고 영화의 기쁨이 있으리.



桂堂 金慶一

願新種疫病終熄

疫病流行混亂時	(역병류행혼란시)	역병이 유행하여 혼란한 때에
死生岐路菌除知	(사생기로균제지)	생사기로에서 균을 제거해야 할 것이니라.
活人妙訣安民本	(활인묘결안민본)	활인에 묘결은 안민이 근본이요
救世良方治國基	(구세량방치국기)	구세에 양방은 치국이 터전이라.
困境打開相助可	(곤경타개상조가)	곤경을 타개함은 상조해야 가하고
危機克服協同宜	(위기극복협동의)	위기 극복은 협동이 의당하다.
醫員尖術成終熄	(의원첨술성종식)	의원의 첨단기술로 역병이 종식되면
健體維持自足怡	(건체유지자족이)	건체 유지로 자족할 것이니라.

廉伯 金 枸 來



願新種疫病終熄

疫病無時擴散時	(역병무시확산시)	역병은 무시로 확산하는 때이니
防除各自率先知	(방제각자솔선지)	알아서 각자는 방제에 솔선하자.
衆人苦楚冥人界	(중인고초명인계)	백성들의 고초에 세상은 어둡하고
舉國昏迷沈國基	(거국혼미침국기)	전국이 혼미하니 나라는 침울하다.
政府于先良謀有	(정부우선량모유)	정부는 우선하여 좋은 묘책이 있어야 하고
醫員第一妙策宜	(의원제일묘책의)	의원은 제일로서 묘한 처방이 옳을 것이다.
危難克服尋平穩	(사난극복심평온)	위난을 극복하고 평온을 찾으면
共助民生幸福怡	(공조민생행복이)	서로 돕는 민생은 행복하고 기쁘리다.



牛步 金基松

願新種疫病終熄

肺炎惡毒蔓延時	(폐염악독만연시)	악독한 폐렴이 만연하는 때에
防疫吾儕道理知	(방역오제도리지)	우리는 방역의 도리를 알아야지.
死力醫僚爭病幕	(사력의료쟁병막)	의료진은 사력으로 병막에서 싸우고
忠心官吏洗汚基	(충심관리세오기)	관리들은 충심으로 오염된 기지를 소독한다.
四隣共助親和可	(사린공조친화가)	사린이 공조하며 화친함이 옹으며
萬國相扶友好宜	(만국상부우호의)	만국은 상부로서 우호가 마땅하다.
疾本方針嚴格守	(질본방침엄격수)	질역본부의 방침을 엄격히 지켜
民生幸福必成怡	(민생행복필성이)	민생의 행복을 반드시 기쁘게 이루자.



峴泉 金 惠 柱

願新種疫病終熄

疫病猖狂混亂時	(역병창광혼란시)	역병 괴질 창궐하는 혼란한 이때
危機現實宿周知	(위기현실숙주지)	위급상황 현실을 누구나가 두루 알자.
往來自制精神本	(왕래자제정신본)	왕래함을 자제하는 정신이 바탕이고
離距維持固守基	(리거유지고수기)	사회 거리 유지하며 굳게 지킴이 기반이다.
盡力豫防終熄可	(진력예방종식가)	힘을 다해 예방하면 종식이 가하겠고
殫誠治療解消宜	(탄성치료해소의)	정성 다해 치료하며 해소함이 마땅하다.
新奇妙藥將開發	(신기묘약장개발)	새롭고 기이한 묘약을 장차 개발하면
萬姓歡呼享有怡	(만성환호향유이)	모든 백성 환호하며 기쁨 향유하리.



東林 金 茂 豊

願新種疫病終熄

肺炎疾疫蔓延時	(폐염질역만연시)	폐렴 전염병이 만연하는 때에
克服危機對策知	(극복위기대책지)	위기를 극복코자 대책을 숙지하자.
社會隔離淸洞里	(사회격리청동리)	사회생활의 격리로 동리는 청정하고
家庭安住淨家基	(가정안주정가기)	가정에서의 안주로 집터는 깨끗하다.
相扶遮患醫僚事	(상부차환의료사)	상부하여 우환을 막음은 의료진의 일이요
共助防災宦吏宜	(공조방재환리의)	공조하여 재앙을 방호함은 관리가 마땅하다.
政府方針遵嚴格	(정부방침준엄격)	정부방침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重熙樂土居新怡	(중희락토거신이)	다시 밝는 낙토에서 새로이 기쁘게 살자.



蒼波 金允來

願新種疫病終熄

不測之淵疫病時	(불측지연역병시)	위험하고 불안한 역병이 만연할 때
向方克服最善知	(향방극복최선지)	극복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 최선이다.
相分苦楚勸當本	(상분고초감당본)	격리 생활 고초는 감당함이 본이요
集合遮离忍耐基	(집합차리인내기)	집회 차단 거리두기 인내함이 기본이다.
全力豫防謀策示	(전력예방모책시)	힘 다한 예방은 본되는 책략 나타내고
同心治療勸漿宜	(동심치료권장의)	마음 모은 치료는 권장함이 마땅하다.
神藥發見成功始	(신약발견성공시)	신비 약 발견이 성공의 시작이니
四海同胞無限怡	(사해동포무한이)	세계 인류에게 끝도 없이 기쁨주리.



撮朗 金俊鎬

願新種疫病終熄

新生疫病活開時	(신생역병활개시)	새로 생긴 역병이 활개를 치는 때에
克服危機解法知	(극복위기해법지)	위기를 이겨내는 해법을 알지어다.
診療授權民衆本	(진료수권민중본)	진료를 받을 권리는 백성의 근본이요
防除施策國家基	(방제시책국가기)	방제하는 시책은 나라의 기틀이다.
疑心患者安身可	(의심환자안신가)	의심 있는 환자는 안신이 가하고
感菌憂人妙藥宜	(감균우인묘약의)	감균된 우인에는 묘약이 마땅하다.
政府方針從實踐	(정부방침종실천)	정부의 방침을 따라 실천하면서
災難終熄萬邦怡	(재난종식만방이)	재난을 종식시키면 많은 나라 기뻐하리.

看山 金亨來



願新種疫病終熄

流行怪疾浸無時

(유행괴질침무시)

코로나가 유행하여 무시로 번지니

免疫于先最善知

(면역우선최선지)

면역 우선이 최선임을 알겠네.

傳染絕根完治本

(전염절근완치본)

전염 근절이 완치의 근본이요

豫防接種健康基

(예방접종건강기)

접종 예방이 건강의 기초다.

住民檢診維持是

(주민검진유지시)

주민은 검진으로 버티어 감이 옳고

政府驅除掃滅宜

(정부구제소멸의)

정부는 구제하여 소멸시킴이 마땅하다.

鬪病如斯終熄日

(투병여사종식일)

이같이 질병과의 싸움을 끝내는 날에

遮脣投棄配同怡

(차순투기배동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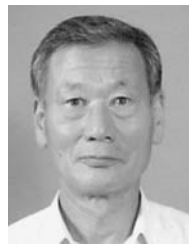
마스크 내던져버리고 합동하여 기쁨 나누리.



笑海 朴文熙

願新種疫病終熄

流行疫病恐圍時	(류행역병공위시)	역병이 유행하여 공포로 위요한 때
名藥名醫火急知	(명약명 의화급지)	명약과 명의가 화급함을 알겠네.
接觸隔離匆住巷	(접촉격리흥주향)	접촉이 격리되어 거주 거리 흥흥해지고
往來遮斷缺生基	(왕래차단결생기)	왕래를 차단하니 삶의 터전이 이지러지네.
蔓延抑制奇謀敍	(만연억제기모서)	만연억제에 기묘한 꾀 펼치고
傳染防除最善宜	(전염방제최선의)	전염 방제에 최선 다함이 마땅하네.
終熄危難傾總力	(종식위난경총력)	위난 종식에 총력 기울여서
日常共樂享歡怡	(일상공락향환이)	일상 함께 즐기는 기쁨누리자.



小丘 安炳大

願新種疫病終熄

疾病新生世變時	(질병신생세변시)	새로 나온 역병으로 번고가 있는 때
早期退治至難知	(조기퇴치지난지)	조기퇴치가 매우 어려움을 알겠네.
千家嘆息紛家道	(천가탄식분가도)	천가는 집안의 형편이 엉클어져 탄식하고
萬國怔忡亂國基	(만국정충란국기)	만국은 나라의 기초가 어지러워 정충하네.
君見醫參人復慘	(군견의참인복참)	그대여 보았는가 환자 회복에 참여하는 의료진
我聽究助藥謨宜	(아청구조약모의)	나는 들었네 백신개발에 공조하는 연구진.
慇懃底力堪吾族	(은근저력감오족)	우리 겨레의 은근한 저력으로 참아내면
終熄非遐必享怡	(종식비하필오이)	머지않아 종식되어 반드시 기쁨을 누리리.



友景 李相權

願新種疫病終熄

人類苛殃極盛時

(인류가앙극성시)

인류사회 모진재앙 대단극성 하는때에

只今亂局克深知

(지금란국극심지)

오늘날 이런난리 극복하여 심지해야

口遮苦痛勘當義

(구차고통감당의)

마스크의 쓰는고통 감당함이 옳이고

水洗煩多忍耐基

(수세번다인내기)

손을씻는 번다함을 찾는것이 기본이지

治療萬全消滅可

(치료만전소멸가)

환자치료 기울이면 가이소멸 앓을가요

豫防盡力效徵宜

(예방진력효징의)

미리방비 진력하면 좋은바람 의당이라

神通靈藥速成發

(신통령약속성발)

신통스런 영약들이 속성하여 나온다면

恐怖回生濟衆怡

(공포회생제중이)

공포로의 해방되어 대중구제 기뻐지리



芝香 李成福

願新種疫病終熄

疫病傳染大亂時	(역병전염대란시)	역병이 번지고 퍼져 세상 어지러울 때
危機對案廣探知	(위기대안광탐지)	위기 대처 방안을 널리 찾아 알아보고
豫防苦楚勘當本	(예방고초감당본)	예방하는 고초는 마땅히 감당하며
治療非便忍耐基	(치료비편인내기)	치료받는 불편은 인내함이 기본이다.
政府支施疵責愼	(정부지시자책신)	정부 지원 나눔에 잘못 들어 책망 말고
國家計策信應宜	(국가계책신응의)	국가 제안 계책을 확신하고 따라서
神通特藥成開發	(신통특약성개발)	신통하고 특별한 약 개발 성공 이르면
終熄宣言百姓怡	(종식선언백성이)	종식 선언되어 백성들이 기뻐하리



芝娥 鄭南順

願新種疫病終熄

疫病延菌世亂時	(역병연균세란시)	역병 바이러스가 번져 세상이 혼란 한 때니
危機克服最先知	(위기극복최선지)	위기를 극복함이 최선임을 알자.
放心癘氣生全域	(방심려기생전역)	염병 기운 방심하여 전 지역에서 나타나니
對策災難定國基	(대책재난정국기)	재난 대책의 국가 기본을 정하자.
豫防維持因防除	(예방유지인방제)	예방유지 방제 노력으로 인하여
日常活動助便宜	(일상활동조편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돕는구나.
集團感染餘波禦	(집단감염여파어)	집단감염 여파를 국민이 협조해 막으면
終熄新規確診怡	(종식신규확진이)	신규확진자가 종식되어 세상에 기쁨을 맞으리라.



瑞潭 崔鍾學

願新種疫病終熄

新種肺炎擴散時	(신종페염확산시)	신종페렴이 확산하는 때에
率先垂範履行知	(솔선수범이행지)	솔선수범해서 이행하자.
昏迷全國爭奇疾	(혼미전국쟁기질)	온 나라가 혼미하니 기이한 질병과 다투는데
苦楚衆民守正基	(고초중민수정기)	많은 백성의 고초에 터전을 정당하게 지키자.
困境打開名藥可	(곤경타개명약가)	곤경타개에는 효력이 좋은 약이 가하고
危機克服善醫宜	(위기극복선의의)	위기 극복에는 양의가 마땅히 알맞다.
政權施策恒遵法	(정권시책항준법)	정부 시책에 항상 법을 준수하고
終熄難關溢摠怡	(종식난관일총이)	난관이 종식되면 모두가 기쁨에 넘치리라.



冠山 秋 鍾 三

願新種疫病終熄

肺炎武漢殆危時	(폐염무한태위시)	페렴번진 중국무한 위태로운 시기려니
災患多方惡性知	(재환다방악성지)	재환극성 다방면에 악성질환 인지하여
發熱涎因爭疫疾	(발열연인쟁역질)	涎沫인한 발열증에 역질고역 싸움이요
適溫體感保原基	(적온체감보원기)	적온 체감 지성 유지 세 원기 보전일세
急治菌毒屍身慘	(급치균독시신참)	응급치료 球菌毒에 실명시신 참혹하고
診療名醫求命宜	(진료명의구명의)	지성진료 명의들은 생명구제 마땅하나
新種病魔終熄願	(신종병마종식원)	고금신종 병마들을 종식되길 바람인바
科羅剔抉萬邦怡	(과라척결만방이)	코로나를 척결하여 세계만방 기쁨이길

靑山 黃光洙



願新種疫病終熄

疫病猖狂大亂時	(역병창광대란시)	신종역병 창궐이라 대란에의 이때인데
危機克服最先知	(위기극복최선지)	위험시기 극복함에 가장먼저 임을알아
蔽脣苦楚勘當本	(폐순고초감당본)	입을막는 고초로서 감당함을 근본이라
滌手煩多忍耐基	(척수번다인내기)	손을씻는 번거러움 인내함이 기초로다
盡力豫防終熄可	(진력예방종식가)	힘을다해 예방함은 가이하여 종식이라
殫誠治療解消宜	(탄성치료해소의)	정성다해 치료함은 마땅이도 해소되리
神奇仙藥早期出	(신기선약조기출)	신기스런 신의약이 빠른시일 나온다면
萬姓歡呼無限怡	(만성환호무한이)	모든백성 환호하여 끝도없이 기쁘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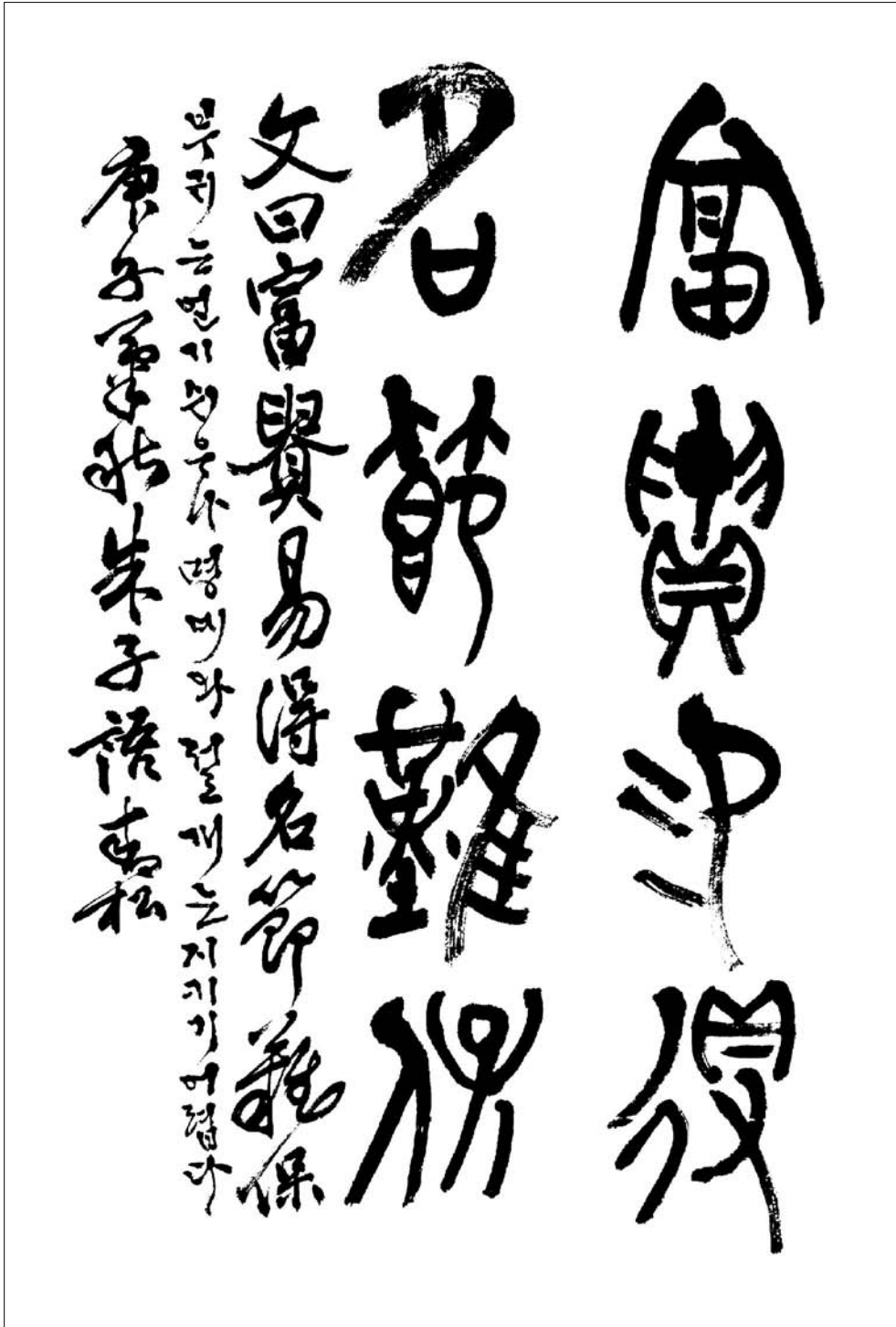
石井 黃在權

한문서에 교실



• 지도강사 : 함연호

• 수료자 : 강미현 김경희 김광식 김기송 김덕주 김중지 박봉균 박상울
박상혁 신동우 안병돈 용정숙 유철호 윤정희 윤지환 이광우
이근천 이정섭 장명한 전성우 전세열 전옥병 최용일



富貴易得 名節難保



지도강사 靑松 咸 衍 鎬

穩坐忘歸對水流樹
 陰溪影別藏秋野禽
 亦感賢侯德隔岼相
 呼勸久留

錄耘谷先生詩一首
 牛步金基松

운곡선생시



牛步 金基松

床頭禪味澹如水吹
起香灰夜欲闌萬葉
梧桐秋雨急虛窓殘
夢不勝寒

錄萬海先生詩
峴泉金惠柱

만해선생시

畫樓東畔俯蓮池罷
酒來看急雨時溜滿
即傾歌器似聲喧不
厭淨襟宜

錄退溪先生詩一首
峴泉金惠柱

퇴계선생시



峴泉 金惠柱

烏雲散盡孤月橫遠
 樹寒光歷歷生空山
 鶴去今無夢殘雪人
 歸夜有聲

錄萬海先生詩
 魯田朴商律

만해선생시



魯田 朴商律

鶴上雲僊白錦袍尋
常海上醉蟠桃三山
往返何論遠駕彼霜
翎意自高

錦松谷先生詩一首
忠岩申東禹

운곡선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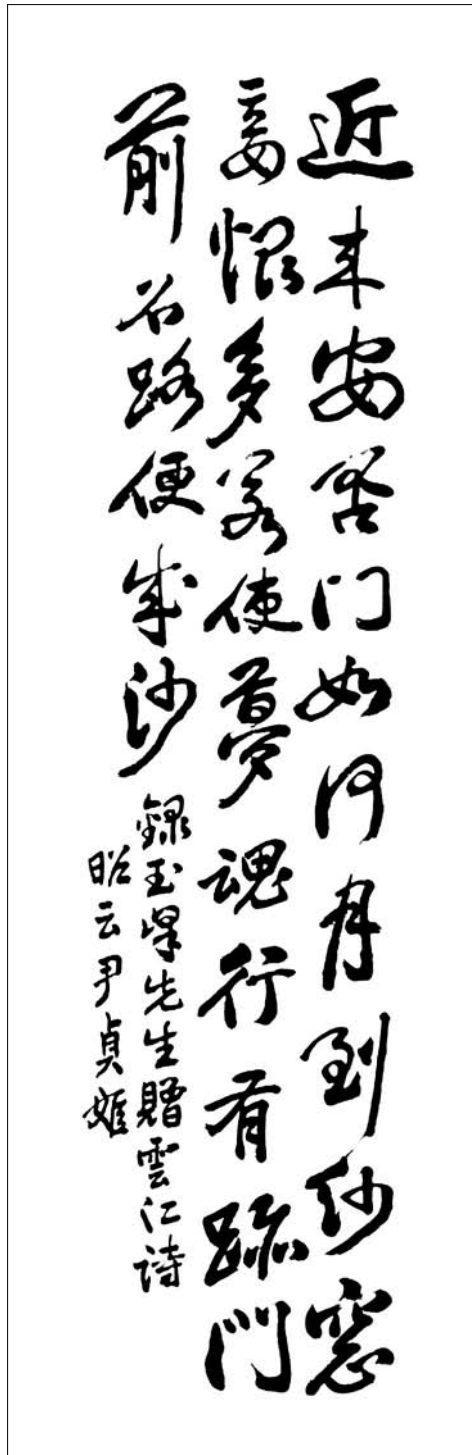
歲暮寒窓方夜永
但頭不寐筆致驚
魂抹雲淡月孤
夢不向滄洲向故園

錦萬海先生詩一首
忠岩申東禹

만해선생시



忠岩 申東禹



옥봉선생시



昭云 尹貞姬

絕壁懸崖捲彩霞
忽看飛瀑掛天涯
銀河直瀉滄溟外
冰散僊翁八月槎

銀太湖先生詩一首
裕哲尹智煥

태호선생시



裕哲 尹智煥

雪粒讀書燈似月春
風洒翰硯生波明經
作賦俱無益聽取門
前鳳德歌

錦牧隱先生詩一首
松湖李光雨

목은선생시



松湖 李光雨

旅館望良伴凝情目悄然寒
燈思舊事斷鴈聲寒曉遠夢
歸侵晚家書到隔年滄江好
煙月門深釣魚船

春坡李根千

여관

榮華難久居盛衰不可量
昔為三斗渠今化秋蓬房
露寒然醒醉未遑央日月遙
復周家古不再陽春三注昔時
憶此斷人腸

魏陶淵明雜詩一首
春坡李根千

도연명시



春坡 李 根 千

長愛秋山色更濃擬
將畱畫寫真容霜林
落葉渾飛盡依舊青
青澗底松

壁巖全星禹

운곡선생시



壁巖 全星禹

樹林深翠欲粧春雲
 淡風輕天氣新遙想
 中原此時節水邊多
 少踏青人

錦耘谷先生詩一首
 峴齋崔容一

운곡선생시



峴齋 崔容一

한국화 교실



• 지도강사 : 조정승

• 수료자 : 김선원 김영한 김점례 박광애 신동우 안삼영 어정수 유철호
윤길중 윤정희 이상세 최종봉 황문복 황영만



화암사 수바위 소견(110x110, 수묵담채, 2020)



지도강사 조 정 승



가을 산사(10호, 2020)



김 선 원



우후의 비룡폭포(수묵, 60호)



김영한



하조대 소견(15호, 2020)



박 광 애



울산암(60호, 2020)



신 동 우



택시기사(15호,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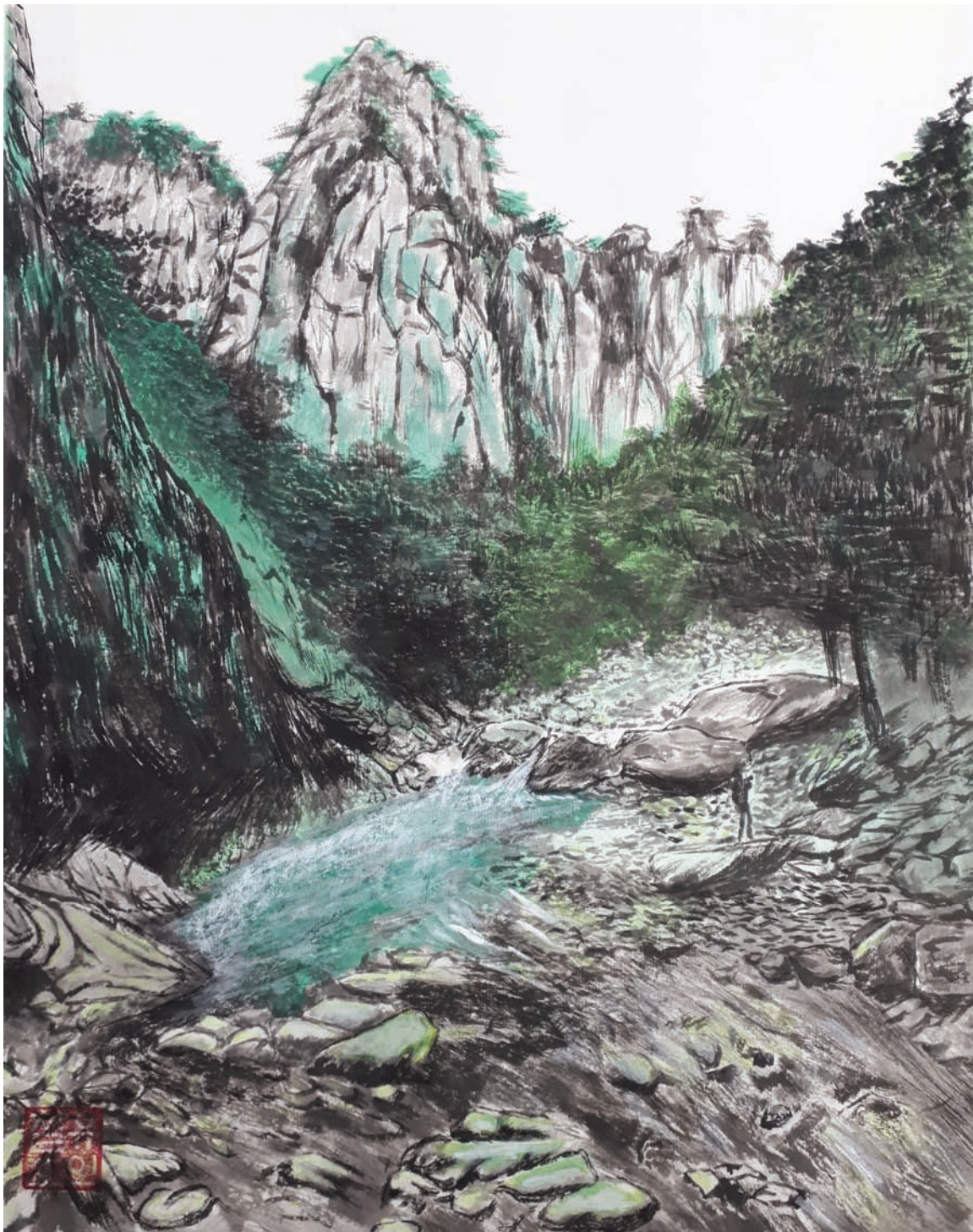
안 삼 영



하조대 전망대(15호, 2020)



어 정 수



주전골 독주암(15호, 2020)



유 철 호



겨울아침(15호, 2020)



윤길중



세연정(15호, 2020)



윤 정 희



천지(15호, 2020)



이 상 세



청학동 이야기(60호, 2020)



최 종 봉



운봉 송림촌(15호, 2020)



황 문 복



우후의 운곡(15호, 2020)



황 영 만

민화 교실



• 지도강사 : 정복자

• 수료자 : 고민숙 김금희 김이남 김형근 노복현 안미자 장영랑 천미랑



연화도



지도강사 정복자



까치호랑이



늘봄 고민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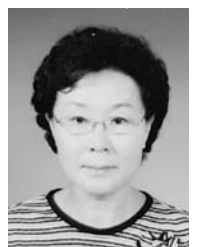
약리도



김금희



문자도 “복”



김 이 남



모란도(가리개)



현담스님



꽃과 원앙



향운 노 복 현





연과 오리



안 미 자



모란도



장영랑



달과 매화



천 미 랑

주채화 교실



• 지도강사 : 김영덕

• 수료자 : 권기복 김두원 김성남 김진미 스즈끼나호꼬 심정순 양순옥
양신자 오은영 윤현숙 이도우 전인경 홍영희



오지마을의 가을



지도강사 김 영 덕



외가댁



권 기 복



출항



김 두 원



장독에 핀 눈꽃



김 성 남



겨울이야기



김 진 미



놀이터

스즈끼 나호쿄





둥구나무(크고 오래된 나무)



심 정 순



봄이 오는 소리



양 순 옥



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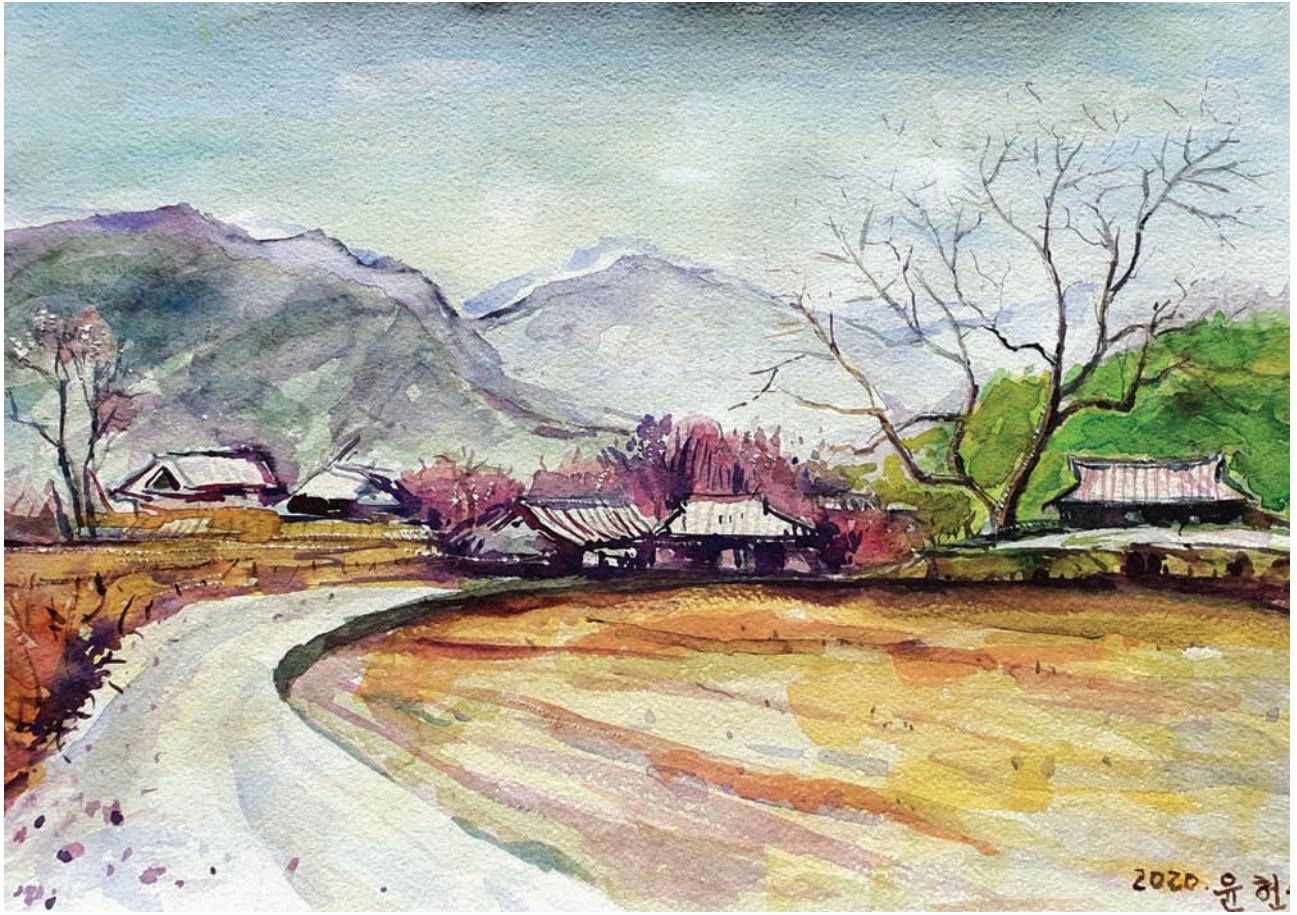
양 신 자



세월의 흔적

오 은 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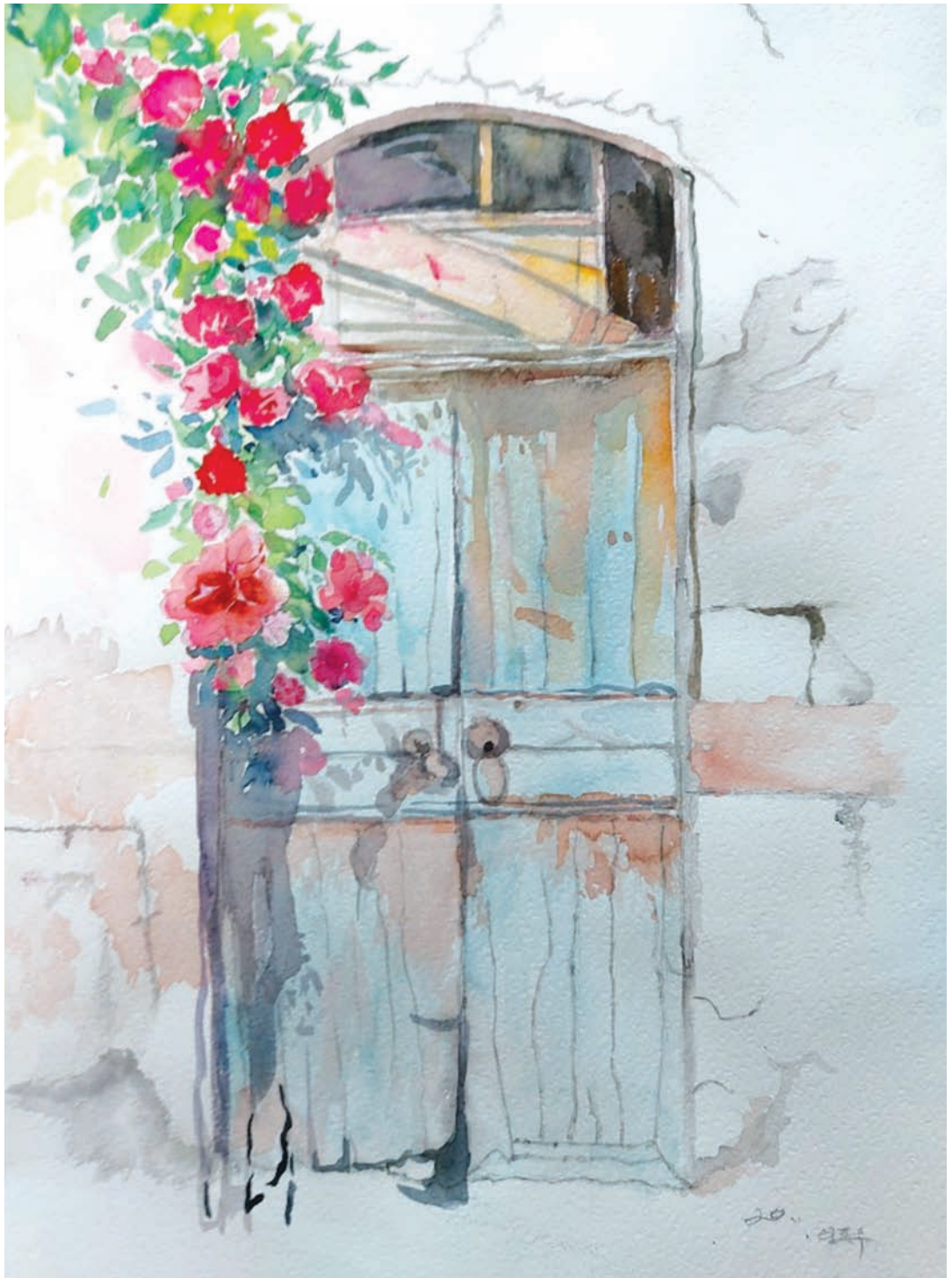




시골풍경



윤 현 숙



정원



이 도 우



파도소리



전 인 경



봄을 기다리며

홍영희



2020년도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작품전

발행일 : 2020년 12월

발 행 : 양양문화원

주 소 :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114-5

전 화 : 033) 671-8762

